

# 부안 바둑 실업팀 창단 '청신호'

조남철 국수의 고향으로 알려져  
남녀 혼성팀 긍정 검토... 창단시  
바둑의 성지로 자리매김 예상

부안군의 바둑사랑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부안군이 바둑 실업팀(혼성팀) 창단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체육회와 전북바둑협회는 팀 창단 당위성을 줄곧 강조해왔고,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적인 권익형 부안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은 바둑과의 인연이 깊다. 부안군은 한국 바둑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남철 국수(國手)의 고향이다.  
조남철 국수는 우리나라 현대 바둑을 개척한 선구자적 인물이며, 조 국수를 기리는 대회도 열리고 있다.  
또한 부안군은 바둑테마공원을 조성했으며, 바둑 프로팀(여자) 운영도 하고 있다.  
이번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실업팀이 창단될 경우 부안군은 명실상부한 바둑의 성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체육과 연계 육성될 수 있어 지역업체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



전북도민체육대회 바둑 경기 모습.

(사진=전북도체육회 제공)

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영산포파크와 채석강, 새만금 등 부안군 홍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바둑협회 박지원 회장은 "현재 바둑을 배우는 학생들 가운데 어느정도 실력이 있으면 서울로 가거나 바둑학교가 있는 순천으로 가는 상황이다"며 "부안군에 팀이 생기면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안가고 학교에서도 선수를 육성하는 데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체전과 도민체전 등의 대회만 있

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배, 국무총리배 대회 등 바둑 관련 대회가 많은만큼 팀이 창단되면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도 수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실업팀 창단이 되면 우리나라 바둑계에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전국적인 움직임이 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둑 종목은 1년 연기 돼 내년엔 치러지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는 등 유망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김경수기자

# 익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내일 준공

배리어 프리 장애인 겸용, 파크골프 18홀 조성... 국제경기 규격 만족  
준공 기념으로 '익산시장배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도 함께 개최

익산시가 북부권역에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나 편리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12일 용안면 칠목리에 장애인 겸용 북부권 어울림파크골프장을 준공하고 준공기념으로 제2회 익산시장배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한다.  
어울림파크골프장은 용안 매풍장 유휴 부지를 활용에 조성했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억2,686㎡ 부지에 총사업비 19억1,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천연잔디가 식재된 파크골프 18홀(선화 A코스 9홀 서동 B코스 9홀)은 국제 경기 규격을 만족하는 규모다.  
특히 간단한 장비와 저렴한 비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 인구가 증가하는데 발맞춰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를 기념해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익산시장 애인골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제2회 익산시장배 전국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준공식과 함께 개최된다.  
이날 약 350명 이상의 전국 선수들과 임원들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우승을 향한 명승부를 펼친다.  
이번 대회로 배리어 프리 국제규격 수준의 파크골프장 인프라를 대내외적으로 알려 전국 최고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골강이 둘러싸인 북부권 어울림파크골프장은 민경강 파크골프장과 더불어 지역사회 파크골프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프로축구 전북현대, 구단 최초 B팀-우선지명-U18 합동훈련

프로축구 전북 현대 모터스에 소속된 B팀, 우선지명 선수 18세 이하 선수들이 4박5일간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전북은 7일부터 11일까지 B팀, 우선지명, U18 팀 등 약 40명을 클럽하우스로 불러들여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김두현 수석코치를 비롯한 A팀 코칭스태프와 유경렬 B팀 코치가 선수 기량을 점검하고 교류한다.  
합동 훈련은 구단 최초로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A팀 코칭스태프들이 B팀과 우선지명을 포함한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확인하고 어린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 구단 관계자는 "훈련에 참여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즌 종료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전북 A팀은 다음달 중순 클럽하우스에 복귀해 다음 시즌을 위한 담금질을 시작한다.  
/뉴시스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 프로탁구, 내달 2일 '광파르'

韓탁구 사상 최대·최장 리그  
광교체육관서 개막식 열려  
코리아리그 13개 등 30개팀  
주니어선수 등록제 도입

한국 프로탁구(KTTL)가 다음달 2일 막을 올린다.  
2023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가 다음달 2일 탁구전용체육관인 광교체육관에서 개막한다. 개막전은 남자 코리아리그 우승팀인 삼성생명과 준우승팀인 국군체육부대 간 경기다.  
현장 관중과 매체를 위해 경기는 오후 3

시와 7시에 열린다. 하루 2경기만 개최된다.  
남자 코리아리그에 1개팀(한국거래소)이 가세한다. 내셔널리그에는 내년 초 남녀 1개팀이 각각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은 코리아리그 13개팀(남 8개, 여 5개), 내셔널리그 15개팀(남 8개, 여 7개) 등 모두 30개팀이 출전한다. 한국 탁구 사상 최대 규모 장기 리그다.  
다양한 선수들을 출전시키기 위해 이번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출전이 허용된다. 국내 선수 보호를 위해 외국인 선수는 한 경기에 1개 매치에만 출전 가능하다.  
주니어선수 등록제가 도입된다. 팀별로 주니어 선수 1명을 영입해 정규리그에서 최대 5번 출전시킬 수 있다. /뉴시스

# '홍해라 대한민국'... 풍물밴드 이상, 월드컵 응원가 발표

전통 악기·판소리 가미

풍물밴드 이상이 월드컵 응원가 '홍해라 대한민국'을 발매한다.  
10일 소속사 어트랙트엠 측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선전을 기대하는 축구 팬들의 열원을 담은 응원가 '홍해라 대한민국'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공개되는 '홍해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전통 악기와 판소리를 가미해 한국적인 소리로 흥을 돋우고 우리의 음악을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크로스 오버 곡이다.  
가수 김홍국이 가사와 퓨처링으로 참여했고, 남서울대학교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이 합창으로 참여했다. 이 곡을 프로듀싱 한 김석원은 남서울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로 풍류대장 K-VIBE 음악 감독으로 활약했다.



'홍해라 대한민국' 앨범 커버

풍물밴드 이상은 이현철(리더, 장구), 이창현(건반), 강성현(팬과리), 손새하(태평소), 진미림(가야금), 권오경(베이스), 신예주(보컬)로 구성된 국악밴드다. 지난해 9월 국내 최초 국악 크로스오버 경연 프로그램 JTBC '풍류대장' 합한 소리꾼들 조가 무에서 최종 5위에 오른 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 배드민턴 대표팀, 한일 국가대항 배드민턴 대회 완승

15일 호주 오픈 출전

2019년 후 3년 만에 재개된 한일 국가대항 배드민턴 경기 대회에서 한국 남녀 대표팀이 첫날과 마지막 날 모두 승리를 거뒀다.  
남자 대표팀은 10일 일본 도야마 타카오카시 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단체 2차전에서 일본을 4-1로 이겼다.  
전현진이 단식에서 와타나베 코키에 1-2로 패했다.  
이어진 복식에서 김영혁-진용 조가 마치다 슈타고토 타쿠토 조를 2-0으로 눌렀다. 단식에서 이윤규가 타케이 리키를 2-0으로 꺾었다.  
복식 서승재-강민혁 조가 야마다 나오키-타케이 리키 조를 2-0으로, 단식 박상용이 사이

토를 2-1로 각각 꺾었다.  
여자 대표팀 역시 일본을 4-1로 눌렀다.  
첫 경기 단식에서 김가은이 타카하시 아스카를 2-1로 이겼다. 복식 김혜정-정나은 조가 히로카미 루이-카토 유나 조를 2-0으로 꺾었다.  
이어진 단식에서 김주은이 카와카미 새나에게 0-2로 패했지만 이후 복식 공희용-성승연 조가 우에스기 안오사와 히나 조를 2-0으로, 단식 안세영이 스이주 마나미를 2-0으로 눌렀다.  
남녀 대표팀은 전날 열린 1차전에서도 일본을 각각 3-2, 4-1로 이긴 바 있다.  
일본을 떠난 대표팀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2 호주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Super300)에 출전한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NH농협

ESG

농업 발전과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 확장

지역사회·환경·인재 발전 지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부안농업협동조합 부안중양농업협동조합 계획농업협동조합 남부안농업협동조합 변산농업협동조합 아서농업협동조합

함께하는 100년 농협

##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농촌과 도시를 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게

자연과 기술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기업과 국민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좋아지게

NH농협이 앞장섭니다

NH 농협